

북캉스 어떤 책 고를까 '행복한 고민'

이승우·공지영·필립 로스
인기 소설가들 신간 잇따라

이승우, 김인숙, 김탁환, 공지영, 성석제, 히가시노 게이고, 필립 로스...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잇달아 소설을 펴내거나 출간 예정이어서 여름 문학출판계에 '소설 대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여름을 일컬어 '소설의 계절'이라도 한다. 전통적으로 소설 판매량이 두각을 보이는 시기가 7-8월이다. 독자와 가장 가까운 장르가 소설인데 휴가철 책을 읽으며 더위를 피하려는 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서점 예스24가 집계한 지난해 월별 판매 추이에 따르면 7월과 8월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8월 소설 판매량은 각각 20만3000권, 30만3000권, 36만9000권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16년 약 10만권, 2017년 약 6만6000권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결과에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월 평균 대비 7-8월의 판매량은 13~2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 특히 소설 판매가 증가한 이유는 언급한 대로 방학 및 휴가와 맞물려 이 기간에 서점을 방문하는 독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파크 도서가 집계한 7월 첫 주 여름 소설 베스트셀러 1위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였으며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과 최근작 '그녀 이름은'도 4, 5위를 차지했다.

올 여름에도 출판사들은 휴가철 소설 인기몰이를 위해 앞다퉈 신간을 선보이고



있다. 저마다의 스타일로 각광을 받는 젊은 작가들에서부터 이름만으로도 작품성, 흥행성을 보증받는 중견 작가, 한국 독자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는 외국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국내 판타지 소설 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영도의 '오버 더 초이스', 지난해 구상문학상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 마니아 독자층을 거느린 구병모 작가의 '네 이웃의 식탁'이 잇따라 출간됐다.

'쇼코의 미소' 이후 2년 만에 펴낸 최은영의 소설집은 일곱 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과거를 불러내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2017젊은작가상 수상작 '그 여름'과 약삭같이 싸우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두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지나가는 밤' 등이 눈여겨볼 작품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작가 구병모의 장편 '네 이웃의 식탁'은 세 자녀를 갖는 조건으로 입주해 허용된 공동 주택에 사는 네 가정의 이야기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지만 공동체로 묶인 이들은 공동 육아를 꿈꾼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대로 삶은 신축 빌라처럼 갈끔할까?

장흥 출신의 중견 작가 이승우는 '만든 눈물'을 펴냈다. 10년 전부터 쓴 소설부터 최근 작품까지 엄정하게 선별한 짧은 소설 27편이 수록돼 있다. 이해 불가한 인간의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는 작가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응시하는 작품을 써왔던 김인숙 작가는 '단 하루의 영원한 밤'을 출간했다. 신형철 문학평론가가 '페미니즘 로즈무비의 통쾌함과 뜻밖의 스킬 러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근 김인숙 소설의 특별한 변화'라고 표현했듯이 작가는 8편의 소설을 자신만의 방식으

로 풀어낸다. 또한 펴내는 책마다 큰 반향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 정유정은 창작 비밀을 밝힌 인터뷰집(지승호공저)을 발간했고, 소설가 김탁환은 4년간의 구상 끝에 역사소설 '이토록 고고한 연애'로 돌아왔다.

이름만으로도 독자들을 설레게 하는 공지영 작가와 성석제 작가도 각각 '해리', '왕은 안병하시다'를 곧 출간한다. 이밖에 한국 독자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매스커레이드 나이트', 지난 5월 작고한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 필립 로스의 '미국을 노린 음모'도 나올 예정이다.

한편 김도훈 예스24 문학 MD는 "여름철을 맞아 소설을 찾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작가들 또한 이 시기를 겨냥해 신작을 출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소설 판매량 증대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호연의 아리랑' 13일 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오는 13일 오후 7시 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호연(전수교육조교) 명창을 초청해 금요국악공연 '이호연의 아리랑 아리랑요'를 펼친다.

이번 공연은 아리랑의 원조 격인 '긴아리랑'부터 강원도 지방의 '강원도 아리랑'과 '정선아리랑', 영남 지방의 '밀양아리랑'과 경기민요로 대표되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신고산타령', '궁초맹기', '자진방아타령', '영변가' 등 주옥같은 경기민요를 포함한 민요 17곡이 불려질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경기민요 명창들이 함께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마무리한다.

이번 공연을 위해 초청된 명창들은 이호연 명창을 비롯해 김영미(전수교육조교) 명창과 한진자, 김점순, 임춘희, 이혜선, 고금성, 전병훈 등 경기민요 이수자들이다.



이호연 명창

공연 당일 오후 6시20분 진도읍사무소, 6시 35분 십일시 사거리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무료관람. 문의 061-540-4031-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영상으로 만나는 '백건우 리사이틀'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7월 'SAC on Screen(썩은 스크린)' 프로그램으로 거장 백건우의 리사이틀이 상영된다.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상영되는 이번 영상은 지난 2015년 9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한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을 영상화했다.

이번 영상 공연에서 백건우는 러시아안솔로 레퍼토리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한국팬을 만났다.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스크랴빈(1875-1915) 서거 100주년을 기리는 특별 무대로, 그의 24개 전주곡과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1번을 연주해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 백건우는 전곡 리사이틀, 해외 오케스트라의 국내 협연 등에서 여러 작곡가의 협주곡으로 오랫동안 안 국내 팬들을 만나왔지만, 러시아 독주 레퍼토리로 한국 팬과 호흡하는 것은 때



피아니스트 백건우

우 드문 케이스다.

광주문화재단은 다음 상영작으로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를 상영한다.

입장료 무료(선착순 100명). 전화예약 062-670-7931, 7세 이상 관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빠의 손맛'...요리강습

전통문화관 20명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요리교실 '여름특별강좌 찬품만들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세부 프로그램에는 오미자차, 비빔국수, 오미자차, 육개장, 열무김치, 감자칩, 미역오이냉국, 오겹살 편육, 양파볶음, 마살라, 녹차, 궁중닭찜, 잔별치볶음, 불고기, 된장국 등 모두 14가지 전통음식이 포함돼 있다.

강좌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총8회), 전통문화관 남도의례음식체험실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민경숙(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찬품만들기' 강습 모습.

례음식장)이 맡는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및 전화·방문 접수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

는 7만원, 재료비는 별도.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시민인문학 수강생 모집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57기 정기강좌를 진행 중이다.

내달 5일(오후 7시 30분)까지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인문학, 철학, 영화, 소설 창작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강좌와 토론이 이어진다.

월요일 인문학입문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가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에는 이진 작가가 '소설, 이론에서 실기까지'를 강의한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각각 명혜영 교수와 신우진 씨가 각각 '철학 스테디-몸으로서의 정신', '묵묵히 책을 읽자!-십인십책'을 이야기한다.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재 안내판 옮겨 바꿔주세요...온라인 접수

문화재 안내판을 개선하기 위한 '찰칵 찰칵 우리 문화재 안내판을 부탁해!' 온라인 행사가 14일부터 8월 5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어렵고 재미없는 안내판 개선 사업'의 하나로, 문화재 안내판의 중요성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문화재 안내판을 읽고 잘된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사진을 찍어 응모 사이트(http://naver.me/GsiGriX4, 문화재청 누리집에서도 접속 가능)에 올리면 된다.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 안내판으로는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있는 안내판, 낱거나 훼손된 안내판, 국문과 외국어에 오탈자가 있는 안내판, 역사적 오류(연도, 인물 등)가 있는 안내판, 번역 오류가 있는 것 등이다. 문의 042-481-474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